**행0204 Note**

**◆ Cross check : 눅1113**

눅1113. 그렇다면, 만약 악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는 법을 안다면,

 천국의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청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훨씬 더 주시랴?

**◆용어 : 방언, 말들**

헬라어 ‘글롯싸’를 기존 성경은 주로 방언(方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글롯싸는 사전에 ‘혀, 언어, 말,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방언(方言)은 표준말에 대응하는 지방말, 사투리라는 의미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방언이라고 표기하기에는, 크리스쳔의 자존심상 허락되

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방언이라고 번역된 영어 tongues가 거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말들’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말들 /케네스 해긴의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p154**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그가 성령을 받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발성기관에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말을 입술에 주실 때

성령님과 협력하여 스스로 말을 해야만 한다고 알려 주십시오.

실제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입니다.

성령님이 말을 주실지라도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우리의 혀를 움직이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이 방언으로 말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은 신자들의 역할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할은 말을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하자면 당신을 지배해서, 당신이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의 암시를 좇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님 사이의 협력입니다.